

“다문화 속담 여행”과 문화 읽기

서태진*

I

김려령의 소설 “완득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완득이¹⁾”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완득이”는 난쟁이인 아버지와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를 둔 고등학생의 성장을 다룬 소설이다.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다문화 가정의 완득이가 주인공인데, 소설과 영화 속 인물들의 삶은 애잔한 비애가 배경이지만 경쾌함을 잃지 않는다. 어느 소설책의 제목처럼 “슬픔도 힘이 된다”²⁾고나 할까? 그리고 어느덧 다문화 가정은 더 이상 한국인에게 낯선 어휘가 아니다.

“유네스코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속담 여행”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기획하여 만든 이 책도 제목에 다문화라는

* 구로고등학교

1) 김려령의 소설 “완득이”는 2008년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되었으며, 이한 감독의 영화 “완득이”는 2011년에 김윤석, 유아인 주연으로 개봉되었다.

2) 양귀자(2005), “슬픔도 힘이 된다”, 살림

단어를 달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다문화’를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회 안에서의 다양성과 관용을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부제인 “아시아 여덟 나라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이 책은 우리나라 밖에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을 찾아가고자 한다. 속담이라는 연결 고리를 통해서.

김광해 교수의 말³⁾처럼 속담은 “민족의 전통 생활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며 완결된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관용어와 구별된다.” 또한 “속담은 상징성, 대중성, 관습성, 일상성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언중들 사이에서 정제되어 정착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 생활상, 인생관, 민족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속담은 언중이 “생활 속에서 터득한 지혜를 고유의 관습화된 양식에 담은 표현”으로, 그 속에는 한 집단의 문화가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속담 여행”은 아시아 여덟 나라의 속담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속담에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깨달은 민중들의 지혜가 들어 있고, 그 속담을 만들어낸 언중의 문화가 녹아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속담을 다루지만 속담 그 이상을 다루고 있다. 제목만 보고 책을 읽기 시작한 사람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 속담이라면 잠긴 빙산이 문화일 수밖에 없다. 문화에 대한 설명의 처음과 끝 부분에 속담이 감초처럼 들어가 맛을 내는 이유는 그런 까닭이다.

3) 김광해 외(1999), 국어지식탐구, 박이정, 323~325쪽

II

이 책에서 다루는 아시아의 여덟 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그리고 일본이다. 햇살보다 따뜻한 정 우즈베키스탄. 마르지 않는 상상력 인도. 해맑은 웃음 태국. 부지런하게 그러나 여유롭게 베트남. 동서양 문화의 절묘한 할로할로 필리핀. 드넓은 땅, 다채로운 문화 중국. 푸른 하늘, 더 푸른 초원 몽골. 전통 속에 피어나는 일본. 각 나라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낸 각 장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주제가 드러난다. 주제는 옷, 음식, 집, 자연과 기후, 동물, 식물, 종교, 그리고 풍습이다.

옷, 음식, 집은 그 나라가 가진 문화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인간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문명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기후, 동물, 식물은 그 나라가 가진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라 자연에 대한 이해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와 풍습은 해당 나라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간단히 의식주의 내용만 살펴보자.

우선 옷을 알아보자. 우즈베키스탄 남자의 외투인 초폰과 모자인 돕프. 인도 여자의 전통 옷인 사리와 남자들의 옷인 도띠. 태국 남자의 윗옷인 파클렁라이와 여자의 윗옷인 파사바, 그리고 남자의 통치마인 파사롱과 여자의 통치마인 파신. 베트남의 대표적인 옷인 아오자이와 일할 때 입는 아오바바. 필리핀 남자들의 전통 옷인 바롱 타갈로그와 바룻 사야. 중국의 전통 옷인 한푸와 치파오와 중산푸. 몽

골의 전통 옷인 텔과 모자인 말르가이와 가죽 장화인 고탈. 일본의 전통 옷인 기모노와 간편복인 유카타, 그리고 남자들만 입는 윗옷인 하카마와 바지인 하오리.

다음은 음식이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먹는 볶음밥인 오쉬와 바삭바삭한 빵인 논. 인도 사람들의 주식인 쌀 요리와 빵, 그리고 커리. 태국에서 먹는 카우팻뿌, 까우팻꿍, 카우팻무 등의 볶음밥과 깡솜, 퓌얌쁠라천 등의 생선 요리. 베트남 양념 추억맘과 쌀국수 피. 필리핀의 전통 요리인 아도보와 팟시우, 그리고 음식을 절일 때 사용하는 향아리인 팔라옥. 비행기와 책상다리 외에는 모두 요리 재료로 사용한다는 농담이 있는 중국의 다양한 요리. 몽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고기와 빵인 탈흐. 일본인이 좋아하는 도미, 우동, 소바, 그리고 라멘.

마지막으로 집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마을 공동체인 마할라와 풍습 하샤르. 인도의 부잣집인 뿔까와 서민집인 깃짜. 기둥 위나 물 위에 집을 짓는 태국, 오두막 모양의 냐산이나 이동식 집이나 수상 가옥을 짓는 베트남. 필리핀의 전통적인 집인 바하이 쿠보와 바하이 나바토. 중국 집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베이징의 쓰허위안과 서북부 고원지대의 야오둥, 그리고 동남부 장난의 쉐이샹 민가. 몽고의 이동식 집인 게르. 일종의 돛자리인 다다미와 그것이 깔린 방인 와시쓰가 있는 일본의 집.

이렇게 의식주만 살펴보아도 각 나라의 문화가 지닌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 책은 해당 나라에서 사용하는 의복, 음식, 가옥에 대한 용어를 우리말과 해당 나라 문자로 보여준다. 각 용어에 대한 풀이가 자세하고, 설명이 어려운 내용들은 풍부한 사진을 첨부하여 이해

를 돕고 있다. 특히 사진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해 지니는 애정이 느껴질 만큼 대상의 특징을 잘 잡았고, 풍경의 아름다움이나 인물들의 표정이 살아있다. 또한 글의 내용은 각 나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썼기 때문에 깊이가 있으면서, 초등학교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고 재미있다.

그리고 아시아 여덟 나라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해당 나라로 들어가면 주제로 분류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해당 나라의 속담, 속담의 본래 글자와 발음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온다. 마지막에서는 ‘아하!’라는 꼭지를 두어서 속담의 뜻, 비슷한 우리나라의 속담, 그리고 속담이 쓰이는 상황이 간단히 언급된다. 속담은 문화적 배경을 지니므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속담이 이해되도록 세심하게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동물 주제에서는 속담인 “코끼리 타고 메뚜기 잡는다.”가 원어와 함께 나오고, 태국에서 코끼리가 하는 일과 그들이 지닌 의미를 안내한 후,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맞는 도구를 써야 한다는 뜻이 나온다.

그런데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대한 글들은 자칫 독자들에게 편견을 만들거나 선입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사람들은 인도나 필리핀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불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도의 카스트나 자띠라는 신분제도를 보고 인도는 전근대적인 나라라고 여기고, 몽골의 샤머니즘 의식이 미신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다 보면 인도와 필리핀 사람들이 왜 손으로 식사를 하며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도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를 알 수 있고, 몽골 사람들이 왜 샤머니즘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사는 자연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각 나라의 문화는 문화의 보편성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그러한 문화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속담을 통해 아시아 여덟 나라의 문화에 접근했다는 사실에 있다. 다른 나라의 속담과 우리나라의 속담을 비교하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우리 거리에서도 잔치가 열릴 것이다.”와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인도의 “자기 집 마당이 남의 궁전보다 낫다.”와 “집 떠나면 고생이다.” 태국의 “물이 차면 물고기가 개미를 잡아먹고, 물이 빠지면 개미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와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베트남의 “쨍쨍할 때 통발을 짜고, 비바람 불 때 두레박을 짜라.”와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필리핀의 “모든 향아리에는 맞는 뚜껑이 있기 마련이다.”와 “짚신도 짝이 있다.” 중국의 “쓰촨 지방의 개가 해를 보고 짖는다.”와 “우물 안 개구리.” 몽골의 “모르는 부처님보다 아는 마귀가 낫다”와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일본의 “남의 살바로 스모를 하다.”와 “남의 떡에 설 씬다.”

그래서 각 나라의 속담을 읽다 보면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목표가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성 속에 녹아 있는 보편성에 대한 확인. 우크라이나의 “강의 물은 봄에 늘어나고, 사람의 가치는 노동에 의해 늘어난다.”에는 노동의 의미가, 인도의 “음력 5월에 동쪽 바람이 불면 소를 팔고 젖소를 사라.”

에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태국의 “황색 옷자락을 본다.”에는 효도의 가치가, 베트남의 “느억맘을 먹을 때는 다음을 생각하라.”에는 욕심에 대한 경계가 드러난다. 또한 필리핀의 “대나무는 자랄 때 하늘을 보고 위로 자라지만, 다 자라면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겸손의 필요성을, 중국의 “강태공의 곤은 낚시에도 스스로 원하는 자는 걸려든다.”는 인내심을, 몽골의 “밖으로 다니는 사람은 입을 조심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불을 조심해라.”는 말조심을, 일본의 “웃는 집에는 복이 온다.”는 미소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III

김광해 교수의 말⁴⁾처럼 “속담은 언중이 낳은 생활의 시(詩)”이며, “속담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교훈적인 개념을, 직관을 바탕으로 고차적인 논리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속담에는 생활과 문화가 녹아 있으며, 교훈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결국 속담을 배우다는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책에서는 처음에 아시아 여덟 나라의 속담과 그 배경이 되는 문화를 읽겠지만,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된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

용광로든 샐러드 볼이든 모든 문화는 섞이게 되어 있고, 문화는 섞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과, 인간은 피부

4) 김광해 외(1999), 국어지식탐구, 박이정, 323~325쪽

색과 종교와 출신 나라를 불문하고 함께 정을 나누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걸음 떨어져 방관하기보다 한 걸음 다가가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좋은 매개가 이 책이다. 특히 이 책은 부록으로 교사 지도서(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함; http://www.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412&wr_id=49)까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에 활용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읽으며 활동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내놓은 “코박사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여행⁵⁾”와 짝을 이루는 좋은 책이다.

5)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0), “코박사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여행”, 대교출판